



전·현직 전북도의원들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과 함께 전북시대를 열어가자.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면서 "전북도민이 키운 이 시대의 준비된 대통령감인 정세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전북출신으로”

전·현직 도의원들,대권 도전 정세균 전 총리 지지 선언 “산자부장관부터 총리까지 역임 국가 운영 역량 검증받아”

전·현직 전북도의원들이 대권 도전에 나선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현직 전북도의원들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과 함께 전북시대를 열어가자.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면서 “전북도민이 키운 이 시대의 준비된 대통령감인 정세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정세균 후보는 전북에서 4선, 총로에서 재선고지를 지켜냈고 산자부장관과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역임함으로써 나라를 운영할 탄탄한 준비와 역량을 검증받았다고 주장

했다.
또, “정세균 후보는 대한민국 제2의 정치지도자, 경제 대통령 후보, 코로나 방역시정관 등 대통령의 덕목을 두루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정세균은 역량과 덕망을 두루 갖춘 대선후보로 유일무이한 본인 필승카드다”면서 “전북대통령을 배출해 호남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를 찾자”며 지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정 전 총리 지지에 참여한 현직 전북도의원은 민주당 소속 28명, 무소속 1명 등 29명이며 전직은 51명이다.

○현직 도의원 - 최영일, 황영석, 문승우, 김철수, 이명연, 이정린, 현완수, 나인권, 김종식, 김대중, 황의탁, 이한기, 박용근, 두세훈, 최훈열, 최영규, 김정수, 김기영, 성경찬, 김만기, 오평근, 송성환, 이병철, 김이재, 박희자, 최찬욱, 김명지, 국주영은
○전직 도의원 - 임정영, 고석원, 김병곤, 김영배, 김용화, 김철규, 김호서, 김희수, 양용모, 유철갑, 최진호, 김병진, 권창환, 문민호, 배승철, 백경대, 소병래, 유창희, 이성일, 정호영, 허대식, 한인수, 고영규, 김대설, 김병훈, 김상철, 김연근, 김정호, 김종담, 김종철, 김태성, 김택식, 김현석, 노석만, 심영배, 양성빈, 오균호, 유우순, 유희빈, 윤승호, 이선기, 이혜숙, 임수진, 정구모, 정진숙, 조현식, 최남일, 최정태, 최형렬, 황석규, 황정수
/유호상 기자

도의회 농산경위, 집중호우 대비 농업기반시설 안전 점검

“작년처럼 많은 비에 대비해야”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8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지역 현황을 방문해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지난해처럼 많은 비와 더불어 대비해야 한다고 예보한 상태다.
이에, 농산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상습 침수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해 배수 개선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정읍시 유정지구 방교배수문 신설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정읍시 화호지구 신대인 배수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및 수중펌프 시설 등을 점검했다.
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4년간(2019.12~2023.12) 160억원의 국비를 들여 배수장 1, 배수문 2, 배수로 정비(7.25km) 등을 진행 중이며, 화호지구는 136억의 국비를 반영하여 배수장 1, 배수문 1, 배수로 정비(11.16km) 등을 완료했다.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는 8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지역 현황을 방문해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두세훈 의원(완주 2)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들지 않음,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취약구간 배수로 준설과 수초제거 등의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여름철 태풍, 폭우 등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것

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황영석 도의회 부의장, 장마철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김제1)은 지난 7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저지대 사업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배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황 부의장은 최근 이어진 장마철로 사업장이 침수된 김제시 금산면 낙수교차로 인근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황 부의장은 마을주민, 김제시 관계자와 함께 배수로 및 침수 현장 등을 둘러본 뒤 배수로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영석 부의장은 “이 지역은 집중호



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배수로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김제시 등과 협의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힘 전북-경기도당 자매결연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8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준식)과 자매결연을 맺는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경기도당은 양도당의 공동번영과 우호증진, 당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전북도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자매결연 협약식 이후 정운천 위원장과 최준식 위원장은 각각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준식)과 자매결연을 맺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본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은 약 3만명,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약 16,000명으로 추산됐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사 내용 외에도 가전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더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규모는 더욱 늘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노동 특성상

“선한 영향력 확산 함께 해주시길”

대권 도전 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다음 주자 유은혜 장관 등 지목

박용진 후보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용진 후보는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횡단 중 사고”라면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은 어린이는 횡단보다 건널 때 잠시 멈춰 이쪽저쪽 살핀 뒤 건너는 습



관을 기르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이쪽저쪽 살핀 뒤 주행하는 운전 습관을 만들자는 의미의 챌린지”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박용진 후보는 다음 주자로 ▲문소리 영화배우 ▲최태성 역사강사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지목했다.
박용진 후보는 “문소리 배우는 대학시절 총학생회장 출신이었을 때부터 함께한 오랜 인연이고, 최태성 쌤은 동갑내기 역사덕후 친구”라면서 “유은혜 장관도 ‘유치원3법’ 통과를 함께한 동지”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함께 해주시길 고맙겠다”면서 “‘유치원3법’을 만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주한 외교사절단 일행과 인사 나누는 송 지사

송지진 도지사는 8일 라호호텔에서 전북도의 그린뉴딜 사업 취학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 46개국 56명의 주한 외교사절단 및 외신기자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 신영대 의원, 외투기업 산업 전환 지원법 대표 발의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설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외투기업의 신산업 추진 시 공장의 신설·증설이나 신규고용 창출 없이도 기존 설비의 대체 활용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신산업 전환 시에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설비나 고용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오늘 전북형 뉴딜 협약 체결

민주 전북도당·전북도, 도내 주요 대학 총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는 9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주요 대학 총장들과 전북형 뉴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 전북도당 주관으로 진행된 전북지역 주요 대학 총장 간담회 이후, 당·정·학 상호 협력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이날 협약식은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송지진 전북도지사, 광명선 군산대학교 총장,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홍순진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당·정·학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성공적인 ‘전북형 뉴딜’ 추진을 위해 전북형 뉴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행정·제도적 지원,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 등에 대해 서명할 예정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성공적인 전북형 뉴딜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량과 지원을 통해 전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당·정·학이 함께 만들어 가는 K뉴딜 1번지 전북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가정내에서 근무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관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는 물음,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를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안전 실태 진단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본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은 약 3만명,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약 16,000명으로 추산됐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사 내용 외에도 가전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더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규모는 더욱 늘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노동 특성상

장시간저임금의 구조 속에서 중노동에 비례한 임무 과중, 부족한 휴식과 정신적 스트레스, 고용불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노동안전 실태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은 대면 업무 및 신체 부담 작업이 수반되고, 감염노동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 현장과 더욱 소통해 노동중심사회를 실현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현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인일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류경완 가전방문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연승중 삼성에스원노조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유호상 기자

